

완주군의회, 대통령실 찾아 “통합 반대”

대통령실 방문 반대 서한문 전달
“지방자치의 주민 의사 우선돼야”
통합 절차·주민투표 강행 비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4일 완주전주통합반대 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완주군민과 군의회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서한문에는 “주민의 뜻이 곧 지방자치의 근본”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발언이 인용됐다.

완주군의회와 주민대표단은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 이 아닌, 주민의 삶과 자치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완주군민의 다수가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완주군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적 공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민투표권자 8만4,645명 중 단 5%인 4,223명의 건의로 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완주군의회와 통합반대 군민대책위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통합반대 서한문을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이어 “주민갈등 조기종식”을 명분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난 2013년 주민투표 이후 완주군은 오랜 세월 지역 분열과 갈등으로 큰 상처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서한문 말미에는 “주민의 뜻을 존중해 통합 권고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최근여론조사에서 군민 71%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항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권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주민투표 권고’가 아닌 지방의회의 공식 의견에 따른 ‘의회의결 권고’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서한문은 완주군을 지키려는 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호소문으로, 반드시 대통령께 전달되길 바란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온전히 발전하기 위해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한문 전달에는 약 150여 명의 완주군민이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통합 추진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굿은 날씨 속에서도 굳건한 결의를 드러냈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정철 기자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축제의 추억을 선사할 다양한 포토존이 주요 장소에 설치됐다. 경관용 국화 3만여 본이 테마공원, 팜이공원, 독대마당, 토굴에 배치돼 가을 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팜이공원에는 1만여 본의 오색 화분국과 조형국, 대국이 어우러진 국화 정원이 조성됐으며, 이곳에는 하트 모양과 전통 장독대를 형상화한 포토존이 마련돼 특별한 추억을 사진에 담을 수 있게 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박희승 “저소득층 의료비 환급 못 받고 시효 소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54% 급증
저소득층 미환급비율 68% 늘어
고액 체납자 환급 형평성 논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의료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소멸시효를 넘겨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보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각 소득분위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은 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5,359건(121억 8,500만원)에서 2021년 23,733건(150억 3,400만원)으로 단 1년 만에 54.5%가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1분위~3분위)의 비율이 건수 기

[표1] 고액장기체납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 (단위: 명, 원)		
지급연도	고액장기체납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인원	금액
합계	2,003	1,895,878,330
2020	240	194,681,710
2021	368	305,035,890
2022	424	379,423,640
2023	404	401,944,110
2024	395	455,800,830
2025.8월	172	158,992,150

고액장기체납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 표 <사진=박희승의원실>

준으로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8분위~10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

반면 1000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건 문제다. 2020년 240명(1억 9,468만원)에서 지난해 395명(4억 5,580만원)으로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 증가했다[표2].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 체납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환급액은 2020년 2조 2,471억원에서 지난해 2조 7,920억원으로 2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급 대상자도 166만 643명에서 213만 5,776명으로 28.6% 늘었다.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특히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환급대상자 213만 5,776명 중 66~89세가 107만 9,21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65세가 80만 9,525명(3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더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과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 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 해 제때 환급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민심 ‘지역 균형발전·새 인물’ 주문

조국당, 추석 연휴 전주·완주서 설문
도민, 조국당 정책 1순위 ‘지역발전’
지방선거 기대 ‘유능한 인재 공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여성위원회는 올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3일(전주역 앞)과 10일(완주 모악산) 각각 진행한 추석 민심 청취 직접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수백 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현장 설문조사는 조국혁신당의 정책 우선순위, 지역 발전 과제, 정치인의 자질,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 결과, 전북도민들은 조국혁신당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정책 분야로 ‘지역 균형 발전’(36.67%)을 꼽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는 당의 핵심 과제인 ‘사법 개혁’(34.44%)과 근소한 차이로, 검찰개혁과 함께 민생, 특히 지역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전북 발전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활동으로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35.11%)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는 ‘지역 인프라 확충’(29.79%)보다 높은 수치로, 대규모 SOC 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에 대한 투자가 더 시급하다는 민심을 보여준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바라는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유능한 인재 발굴 및 공천’(39.79%)과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35.48%)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민들이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며, 참신하고 실력 있는 새 인물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 대안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로는 ‘도덕적 청렴성’(32.26%)이 1위로 꼽혔으며, ‘전문성과 실력’(27.96%), ‘소통과 공감’(25.8%)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당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도민들이 조국혁신당에 그 어떤 기득권 세력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문 판별에 직접 의견을 남긴 시민들은 “조심으로 돌아가 조국(나라)만 생각해 달라”,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여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해 달라”는 따듯한 질책과 함께,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많이 내 달라”, “전주-완주 통합에 힘써 달라”, “KTX 군산역을 만들어 달라” 등 구체적인 정책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정치에 줄서는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라”는 조언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최영심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도민들께서 왜 ‘지역 발전’과 ‘새로운 인물’에 목말라 하시는지, 왜 우리 당에 더 엄격한 ‘도덕성’과 ‘소통’을 요구하시는지 뼈저리게 성찰했다”며 “보내주시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하게 새겨, 말뿐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제20회 순창의 밤날 세계를물들이어

순창장류축제

3일간

2025. 10.17(금) ~ 10.19(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

장맛나라에 온 캐치! 티니핑

10.18.(토) 11:00, 15:00

황금 메주를 찾아라

매주거리에 소원달고 황금 선물 받자

매일 31명 추첨

골드바 1돈(1명), 고추장 또는 커피 세트(30명)

축제장 곳곳의 장추왕을 찾아 인증하면

매일 100명 선물 증정

20 Happy Start!

20주년, 성년을 맞은 너와 나

별간색 아이템을 가진 2006년생 20세에게

매일 150명, 돌림판 경품 증정

※ 민속마을이 조성된 시기인 1997년생 포함

개막식

10.17.(금) 19:00 주무대

김희재, 에녹 외, 불꽃놀이

폐막식

10.19.(일) 18:00 주무대

전유진, 천록담, 김소유 외

장류 20%+10% 상품권 지급

전 장류상품 20% 할인+영수증 인증시 10% 상품권 지급 (지급한도 상품권 10만원)

QR코드

순창장류축제

도 7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완료

도내 인구감소지역 7개 군 신청 선정 시 지역 주민에 2년간 매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도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7개 군 전체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곳을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7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이 모두 참여한 것은 이 제도가 지역소멸을 막고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각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의 파급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인구 유출로 역대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농촌 읍면 단위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8,500억 원 규모다.

도는 최대한 많은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는 14일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7개 군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윤준병 의원,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임

국정기획위 농정 설계 ‘전문가’ 농업 민생 4법 통과 주도 활동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이원택 의원의 전북지사 출마 선언에 따라 공석이 된 민주당 몫 간사로 윤 의원을 선출했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소관 상임위의 의사일정과 안건을 조율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 등의 소관 법안 및 예산 심사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로, 농어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미래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미래 농정과제 설계를 주도하는 등



윤준병 의원

‘농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90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농업 민생 4법 등 농어업 핵심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등 정책역량을 입증했다.

윤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및 해양강국 실현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를 통해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

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국정과제 대응 전략 마련 릴레이 세미나 개최

전북연구원서 분야별 논의 농생명·신산업·균형발전 전략모색 국정과제 연계 전북형 로드맵 마련

전북도는 16일까지 3일 간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국정과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국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도의회, 전

북연구원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전북형 성장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전북이 강점을 지닌 ▲혁신성장(농생명) ▲진짜성장(신산업) ▲균형성장(5극3특, 문화·관광) 등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도정과 국정과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세미나 첫날인 14일 ‘혁신성장’ 세션에서는 이인규 글로벌스마트팜연구소 대표가 ‘AX의 혁신거점, 자이언트 스마트팜 조성 전략’을, 김창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새만금 K-푸드 수출 허브단지 구축 방향’을 발표하며 농생명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15일 ‘진짜성장’ 세션에서는 AI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혁신

방안이 논의된다. 이정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이 ‘AI 시대, 전북의 도전과 기회’를,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이 ‘전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을 주제로 전북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16일 ‘균형성장’ 세션에는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5극3특 구상 속 전북의 미래 성장 비전’을, 최준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균형발전 시대 새만금 메가특구 성장 전략’을 발표한다. 이후에는 양혜원 본부장과 박경열 기조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각각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신정부 관광정책과 전북 대응 방향’을 주제로 문화와 관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

안한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정과제와 도정 핵심과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연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향후 도정 정책 수립과 국가 예산 확보 전략에 반영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협력의 장이자 전북 비전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농생명·신산업·균형발전·문화관광 등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의원 “정부, 밀 소비 통계 오류 조작”

SPC·삼양 포함 후 20% 급등 표본 오류가 ‘소비 증가’로 둔갑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가 밀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소비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밀 소비량이 왜곡됐다”고 지적



이원택 의원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양정자료 기준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은 2015년 32.2kg에서 2020년 31.2kg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단, 1년만인 2021년에 18.3% 증가한 38.3kg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식용 밀 소비량 가운데 가공용이 100만9천 톤에서 138만 5천 톤으로 약 38만 톤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공개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수입 통계(HSK 코드: 1001992090)에 따르면, 같은 기간 250만 톤에서 250만 3천톤으로 겨우 0.1% 증가에 그쳤다. 즉, 시중에서 얘기되는 ‘소비 증가’는 실제 수입 흐름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공식 통계와 수입 통계 간 수치가 이렇게 엇갈린다는 것은 조사 체계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확인 결과, 2021년 이후 밀 소비량 급증은 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착시로 확인됐다. 이전까지는 한국제분협회 회원사의 생산량만 반영했으나, 2021년부터 SPC삼립(약25만t)과 삼양제분(약7.5만t)의 생산량이 새로 포함되면서 전체 집계량이 약 20% 늘었다.

또 현재 식량과 가공 구분 속에 종려분의 65%를 식량으로 나머지를 가공으로 잡고 있지만 가공이 기본인 밀 소비 특성과 맞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정부가 2010년 이후 세부 용도별 소비조사를 중단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제분협회가 회원사별 생산량 정보를 공유하지 않게 되면서, 농식품부는 식량용·가공용 구분 통계를 15년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2의 주식이라 불리는 밀의 소비 실태조차 모르는 것은 정책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밀 산업 육성에 앞서 기초 통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안정 관리’ 주목

’23년 대비 도입 인원 3배 증가 이탈률 1%미만 유지 거주 및 복지여건 개선 주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크게 확대하면서도 이탈률을 1% 미만으로 낮추는 등 안정적인 관리를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도입은 늘리고 이탈은 줄인 ‘전북형 질적 관리’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기존 2,826명에서 8,392명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증가는 농촌 지역 등의 수요 발생에 따른 것으로, 8월 기준 전국 평균 도입률이 63% 수준인 반면, 전북은 80%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같은 기간 이탈자

수는 187명에서 59명으로 줄며, 이탈률은 6.6%에서 0.7%로 크게 개선됐다.

전북자치도는 근로자 이탈률을 낮추기 위해 ‘양적 확대보다 질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선발 단계부터 정착까지 전과정에서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특히 MOU 체결국 현지 선발 비중을 확대해 인력의 신뢰성과 근속률을 높이고 있다. 현지선발 참여 지자체는 2023년 4곳에서 2025년 현재 11곳으로 늘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브로커 개입을 줄이고 이탈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신축 사업을 추진해 2022년 2개소, 2023년 3개소, 2024년 2개소, 2025년 3개소 등 총 10개소까지 확장(준공 4, 추진 중 6) 중에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내년부터 농촌 유희시설을 활용해 공동숙소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등 정주여건을 더욱 확충해 주거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근로자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고용주 136명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인권보호, 성범죄 예방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해 근로자 권의 보호는 물론, 고용주-근로자 간의 상호 신뢰도 높이고 있다.

근로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도 강화됐다. 전북도는 시군을 통해 약 1,3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소방, 응급대응,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위기 대응력 향상은 물론, 정착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인력증가센터와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해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전북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도 마련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지 선발 확대, 숙소 지원 확대, 교육 강화를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식중독 예방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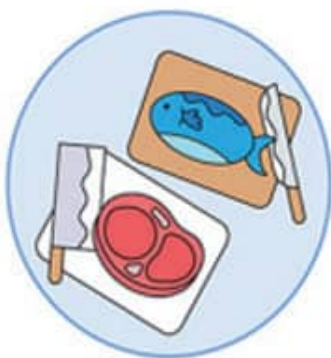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냉장식품 5°C 이하
냉동식품 -18°C 이하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물은 끓여서 먹기



육류 중심온도 75°C
(어패류 85°C)
1분 이상 익히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1593 전주별시’ 전주한옥마을에서 재현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 개최 국궁·한글 글짓기 등 과거시험

‘제8회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가 오는 22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주시는 전주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부터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과거시험(국궁(國弓), 한글 글짓기·산문/운문, 한시(漢詩)) △방방

레(시상식) △급제자 유가행렬(遊街行列) △사은숙배(謝恩肅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이어진다. ‘전주별시(別試)’는 1593년 임진왜란 도중 광해군이 전주에 머물며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인재를 뽑기 위해서 실

시된 과거시험이다. 전주별시 참여희망자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www.dongcheon.o.kr) 또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ILP 위원회’ 개최

ILP 서비스 시스템 본격 운영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14일 제2차 ILP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ILP 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ILP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대학의 연구성과 및 기술을 도내 기업과 연결하여 산학연 맞춤형 연구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ILP 서비스 사업 추진결과를 보고하고, ILP 서비스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ILP 서비스 기술연결 수요기업 모집 결과와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 모집 결과가 공유됐다.

또 ILP 서비스 시스템의 현재 구축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 ILP 시스템(https://ilp.jbtp.or.kr)은 지난달 30일에 론칭되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장과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에는 더 많은 기업과 기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ILP 서비스의 기술적 발전을 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도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한 단

장은 “ILP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연구자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혁신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빠르게 상용화되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ILP 서비스 기술연결 수요기업(7차) 모집이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중기중, 개성공단 입주기업 80% ‘재가동 시 재입주 희망’

중소기업 45.5%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포함)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응답한 200개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7.2%가 개성공단의 경제성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80.0%가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통행·통신·통관 제도 개선(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45.5%가 남북경제협력 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 대비 북한의 투자환경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36.0%에 달했다.

남북경협의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이 25.1%로 가장 많았고, △지리적 접근성(21.0%),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남북경협 추진형태로는 △북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35.0%) △남한기업의 북한 위탁생산(33.5%) △남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21.0%) △제3국 내 남북 생산기지 공동 운영(6.5%) 순으로 응답했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

원책(복수응답)으로는 ‘남북경협 특별법 등 법률장치 마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행·통신·통관 등 인프라 개선(22.5%), △재산·신체 손해보상 방안 마련(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간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회복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건축물 철거공사 재개

철거공사 이달 말 예정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건축물 철거공사가 본격화된다.

대한방직 부지 건축물 철거는 지난 9월 29일 해당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완료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

로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반출에 따른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건축물 철거 완료 후 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도 함께 이행해 내년 초까지 철거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관원, 절임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단무지 등 211개소 가공업체 대상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절임식품 가공업체 대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절임식품 전일염 생산량은 23년 210,000~260,000만톤 24년 208,000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절임식품에 사용하는 소금 가격은 호주산 1kg당 100~170원, 국내산 1kg당 600원~700원대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농관원은 도내 211개 절임식품 업체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美캔자스시티, 문화경제 협력 교두보 마련

캔자스시티 한인회장단

전주시에 교류 희망 서한 전달

전주시가 미국 중부 문화경제도시인 캔자스시티와의 국제 교류 강화에 나선다.

시는 14일 전주를 방문한 캔자스시티 한인회장단이 양 도시 간 문화·스포츠·경제 분야 협력 강화의 뜻을 담은 캔자스시티 시장의 공식 교류 희망 서한을 우편기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캔자스시티 한인회장단의 공식 전주 방문은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펼쳐진 세

계한인회장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양측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산업적 기반을 토대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위촉된 문경환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전주 기업의 미국 진출과 양 도시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

캔자스시티 한인회장단은 지역 내 기업 박람회에 참여하고, ‘BUY 전주’ 우수기업 등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자문·상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양 도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스포츠·문화·관광·산업 등 다방면의 교류 강화를 약속했으며, 시너지효과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환 캔자스시티 한인회장은 “전주시가 스포츠·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지역의 주력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해 전주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

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와 캔자스시티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에 전주시를 알리고, 문화와 스포츠를 매개로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 전주의 국제 네트워크가 더욱 넓혀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캔자스시티와 문화·스포츠·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모기향 불씨 원룸 화재 이어져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최근 관내 원룸 모기향 불씨가 화재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3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원룸에서 발생했다. 이날 금암119안전센터 소방대의 신속한 진화에 따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건 1점 소실 및 바닥 일부가 그을렸다.

화재조사 결과에서는 거주자가 모기향을 피워둔 상태에서 외출한 것으로 불씨 방치에 의한 부주의 화재로 판단됐다.

소방당국은 “모기향은 눈에 띄는 불꽃이 없더라도 최고 700도 이상으로 타오르는 불씨를 가지고 있다”며 “이불, 커튼, 종이 등 가연성 물질 근

처에서 사용할 경우 언제든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에서 모기향·인센스 등 향불로 인한 화재가 164건 발생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모기향과 같은 향불은 반드시 견고한 금속 받침대를 사용하고, 주변 50cm 이내에 가연물을 두지 말며, 외출 전에는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전자식 모기퇴치기, 액상 리필형 등 불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된 만큼, 화재 위험이 낮은 무화(火) 제품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소민 기자

완산구, ‘LED 보행등 설치’ 관내 안전밤거리 제공

전주시 완산구는 시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LED 보행등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구의 LED 보행등 설치 사업은 삼천동 및 서신동 관내 지역 보행로 중심 초·중학교 통학로 대상이다.

아울러 사업을 통해 관할지역 주요 생활도로에 빛 번짐 최소화 및 조사

각 조정이 가능한 LED 보안등기구 총 200여개소에 새롭게 설치한다.

구는 10월 착공 후 오는 11월 초 준공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 후 시민 야간 보행 불편과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브라질 상파울루시 방문단 “한문화 중심도시 전주에 반하다!”

문화교류협력 방안 논의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시 대표단이 국제교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전주를 방문한 브라질 상파울루시 방문단과 문화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의 한식·한지 문화를 중심으로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상파울루시 방문단에는 마르시오 켄지 이토 상파울루 시의원과 한류 콘텐츠 사업가 등이 대거 참여했다.

방문단은 간담회에 앞서 한식장의센터를 방문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한식장의센터와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어진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면담에서는 △2026년 상파울루시 한식 축제 기간 중 전주시 홍보 부스 운영 △한식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전주시 촬영 협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남아메리카 최대 도시인 상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시 대표단이 국제교류를 위해 전주를 찾았다

파울루시는 △한국문화의 날(8월 15일) △한복의 날(10월 21일) △한식의 날(10월 23일) △김치의 날(11월 22일) △K-drama의 날(11월 29일)을 지정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왔다.

시는 상파울루시와의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한지·한식을 비롯한 k-콘텐츠를 기반으로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국제교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전주의 풍부한 한식 문화와 전통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널리 알려지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 한식 관련 다큐멘터리 촬영 협조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주민욕구조사’ 실시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도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지역사회 복지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는 전문조사원 80명을 투입해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개 시·군 9,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가구 일반 현황 △사회보장 관련 욕구 △복지분야별 시급성 및 노력 체감도 △생활여건 및 지역 만족도 등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2월까지 분석·보고서로 정리해 각 시·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시행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NH농협은행 ‘연금수령계좌변경’ 서비스 출시

서류 제출방문 없이 모바일 앱 통해 변경 고객 중심 서비스 선포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연금수급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금수령계좌를 NH농협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NH올원뱅크, NH스마트뱅

킹 내 탑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등 주요 연금을 타 금융기관 계좌로 받고 있는 고객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농협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농협은행 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또 NH농협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연금 수급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고객

활력UP!’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 세라젠 파우제 M6 안마의자, 2등(3명) 파크골프채, 3등(10명)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4등(500명) 편의점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 예정이다.

보너스 이벤트로 연금수령계좌변경 서비스를 통해 연금을 수급한 고객 대상 500명을 별도 추첨하여 1만원권 편

의점 상품권도 제공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연금수령계좌 변경 서비스는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고객 중심 서비스”이라며 “앞으로도 연금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지방조달청 ‘교육물품전시회’서 조달 협력 강화

지역 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속 지원서비스 확대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20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물품전시회(교육물품 파트너십데이)’에 참여해 공공조달 상담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전시회는 도내 제조업체의 우수 교육물품을 학교 관계자에게 직접 소개, 구매 상담을 하는 ‘파트너십데이’를 통해 지역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교육기관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현장에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 부스를 운영하여 조달 절차, 나라장터 활용법, 공공시장 진입 전략 등을 안내하며,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교육’을 통해 개편된 전자조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전시회는 14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김항수 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지역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조달청은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지방조달청은 ‘20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물품전시회’에 참여해 공공조달 상담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중기청, 해외인증 획득 소요비용 지원

내달 14일까지 총 280개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늘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추경사업), 그리고 8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트랙과 함께 간이심사를 통한 신속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인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총 280개 기업(일반트랙 180개, 패스트트랙 100개)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

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개이며, 패스트트랙의 경우 EU의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8개 인증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인증) 신청 건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수출 지역 다변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인증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수출규제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기업 모집은 11월 14일까지 이뤄지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베트남 진출 희망 도내기업 모집

24일까지 ‘2025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오는 24일까지 ‘2025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베트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북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내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한-베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베트남 진출 희망기업 중, 전북특별자치도 3대 주축산업(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해당기업이다.

참가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경쟁력 및 현지 시장성 조사 등의 평가를 통해 5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현지 숙박 및

대관료, 현지 교통, 통역 등이 제공된다.

수출상담회는 11월 23일~29일 베트남 호치민 시 일대에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은 수출상담회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현지 기업방문 및 시장 전문가 컨퍼런스와 한-베 기업 간 네트워킹 등에 참여한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K-푸드, K-뷰티 등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 내 한국 제품의 인기를 힘입어 도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아이템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s://www.smtch.go.kr/region/rms>)에서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4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전북지속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온실가스 감축 건강 식단 실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4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북지속협)와 함께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지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공동체 지원 10월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바이오진흥원이 지원하고 진흥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저탄소 식생활 참여 및 홍보를 위한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고 바이오진흥원 구내식당에서 저탄소 식단으로 구성된 식사를 실시하며 전 직원이 다 같이 참여하였다.

바이오진흥원은 이은미 원장은 “일상 속 탄소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에도 전북지속협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ESG 경영을 통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코리아홈마트, 보호대상자 위한 전기매트 전달

일상생활 지원·정서적 안정 기여

코리아홈마트(대표 김태권)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에 전기매트 50장(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전기매트 전달은 보호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태권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들이 최선을 다해 안정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갇혀있던 생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소민 기자

농촌진흥청, 최적의 잡곡 혼합비율 개발 산업화 ‘박차’

가능성 식품 소재 관심 농가소득 증대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을 위해 개발한 최적의 잡곡 혼합비율과 가능성 증진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추진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국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건강 관리와 질환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확대를 이끌고 있다.

잡곡은 식이섬유, 폴리페놀, 단백질 등 풍부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가 높다. 지금까지 시판된 잡곡 혼합 제품은 주로 맛과 식감 위주의 배합에 그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주요 잡곡 가운데 항당뇨·항고혈압 효능이 우수한

품목을 선별하고, 과학적 검증을 거쳐 최적의 혼합비율을 설정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특허는 현재 대상엘라이프, 웰텍 등 9개 업체에 기술 이전됐다. 이를 통해 혼합곡 4종, 특수의료용도식품 1종, 떡·과자 등 가공식품 4종이 출시됐다. 향후 고령친화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규모는 2024년 6374억 원에서 2033년 1조886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된다.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의 지속적 증가와 관련 식품군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맞물리면 수요가 증가해 경제적 가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품질관리평가과 하태정 과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잡곡밥 취반 특성 연구와 질량별 맞춤 잡곡 블렌딩 기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국산 식량작물이 돌봄식 등 산업소재로 활용되면서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신협재단 ‘온세상 나눔캠페인’ 5억 원 규모 난방용품 지원

전국 678개 신협 참여 취약계층에 겨울 나눔 실천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신협재단)은 14일부터 전국 신협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용품을 전달하는 ‘2025년 온세상 나눔캠페인’을 추진한다.

‘온세상 나눔캠페인’은 2015년 신협재단 창립기념일을 기점으로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매년 연말 전국 신협이 함께 참여해 난방용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누적 51억 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15만여 가정에 전달하며 대표적인 겨울 나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캠페인에는 전국 678개 신협이 참여해 총 5억원 규모의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물품을 직접 전달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병행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아동양육시설 등 유관 기관을 통해서도 기부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 품목을 대폭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이불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온열매트, 난로, 보온용품 등 난방 필수품은 물론, 생필품과 건강식품을 담은 ‘어부바박스’도 함께 전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신협재단 김윤식 이사장은 “신협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협동의



신협사회공헌재단은 14일부터 전국 신협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용품을 전달하는 ‘2025년 온세상 나눔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전국 신협이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온세상 나눔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 차세연 교수, 조류 감염병 다중진단키트 개발

기존 키트보다 빠르고 정확 불필요한 대규모 살처분 축소 기대

전북대학교 차세연 교수(조류질병연구소)가 양자점(Quantum Dot) 기술을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와 인수공통감염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진단키트를 개발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성과는 기존의 RT-PCR 검사나 신속진단키트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고 정확하며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차세연 교수

달리 양자점 나노비드의 발광 특성을 기반으로 극미량의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을 만큼 민감도가 높고, 검사 시간은 15~30분으로 단축, 정확도는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H5, H7, H9 등 다양한 변종을 단일 검사로 동시에 검출할 수 있어, 조류 질병 확산을 막고 불필요한 대규모 살

처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까지 연동돼 감염 패턴을 예측하고 확산 위험을 분석할 수 있어, 방역 당국과 농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차세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속가능 농업 공동연구프로그램(CRP) 과학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한국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연구자들과 함께 농업·방역 정책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국제적 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북대 수의대를 졸업한 차 교수는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기후대학,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등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역임했고, 전북 가축방역심의회 운영위원과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 부소장(전) 겸 교육부장, 전국여교수연합회 사무총장 및 학술위원장(전), 전북대 교수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해 “양자점 기반 다중진단키트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감염병의 조기 대응과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연구자들과 협력해 인류가 직면한 감염병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가 13일 저녁, 대학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과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학생들 ‘소통의 장’

학교 운영에 학생 목소리 반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3일 저녁, 대학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과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민기 총학생회장은 “지난 학기 양 총장은 취임 이후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 향상에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대학 인근 식당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과 총장이 맥주잔을 기울이며 대학생활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면서 대학가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 구민기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자치기구 임원과 일반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대학생활 속 학습 환경

개선과 자율적 학생활동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총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양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민기 총학생회장은 “지난 학기에 이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개선사항을 총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학생자치회로서 대학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은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학생중심 대학을 보다 앞장 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성비위 징계, 전국 국립대 2위…16건

강경숙 의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전북대 성비위 징계건수가 전국 국립대 가운데 상위권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8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강경숙 의원

래로 많은 수치다.

직급별로는 교수·조교수·직원·조교

수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북대에서는 총 16건의 성비위 징계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대학교에 이어 전국 국립대 가운데 2번

째로 많은 수치다.

직급별로는 교수·조교수·직원·조교

수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북대에서는 총 16건의 성비위 징계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대학교에 이어 전국 국립대 가운데 2번

째로 많은 수치다.

직급별로는 교수·조교수·직원·조교

수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북대에서는 총 16건의 성비위 징계가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성희롱 60건, 성추행 59건, 성폭력 20건, 불법촬영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곳인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물품전시회’ 도내 업체 70개사 참여

교재교구전자기기 등 전시 기업 판로 확대 기회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물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도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교육물품을 학교 현장에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재·교구 △전자기기 △공사용자재 및 시설용품 등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들이 전시됐다.

행사에는 도내 제조업체 7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 시설 및 계약 업무담당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띠었다.

특히 제품 전시·상담은 물론 차세대 나라장터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돼 실질적인 구매 연계와 상생협력의 장



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교육물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 교장터 내 ‘전북교육장터’ 운영 △지역 제품 우선구매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담당자 시상 등 지역업체 우선구매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전

시회는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출발점이다. 도내 기업에는 판로 확대를, 교육기관에는 경쟁력 있는 물품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완주군청 완주군 야구장 이용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완주군은 14일 완주군청에서 학생 및 학생선수의 교육활동과 체육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 및 학생선수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학생선수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완주군 제1야구장은 2021년 준공됐으며 정식규격의 야구장과 함께 전광판, 조명 등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추후 조성될 제2야구장 또한 협약에 포함돼 있어 학생들이 완주군에 조성된 최신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 △학생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공간 확보 △야구종목 체육활동기회 확대에 따른 우수선수 발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직원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보’

공무원 명함·소속 위조·특정업체 제품구매 유도 등 6건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소속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 견적 요구,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거래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사칭 수법은 △공무원 명함·소속 위조 △비공식 연락을 통한 납품 및 견적 요구 △선입금, 특정 업체 제품 구매 유도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나라장터 등록업체를 상대로 위조된 교육청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특정 업체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흡연축정기를 대리 구매해달라’는 연락

을 받았다는 신고를 지난 10일부터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문자 등 비공식 경로로 물품 납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의심 연락 시 반드시 교육청을 통해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전북교육청 명의로 물품 발주나 계약 요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기관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할 것이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기요금도 줄이고
탄소도 줄이고
전기 콘센트 뽑자



전기밥솥
보온시간
줄이기



냉장실
60%만
채우기



선풍기
전원끄기



핸드폰
충전기
뽑기



계절 가전
콘센트 뽑기



스위치형
멀티탭
활용하기

익산예술의전당, 18일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선보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18일 오후 3시 대공연장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의 작품 '정글'을 무대에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정글은 국립현대무용단 김성용 예술감독의 안무작으로 2023 모다페(국제현대무용제) 공동 개막작으로 선보이며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작품의 배경인 정글은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공간이다. 17명의 무용수가 표현하는 세심한 움직임과 내면의 감각을 통해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무대는 김성용 예술감독이 개발한 비정형적 움직임 리서치 방법인 '프로세스 인이트(Process Init)'을 통해 이끌어낸 창의적인 움직임들로 이뤄진다.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감각을 깨우고, 상호 간의 반응을 탐색하며 움직임의 변화와 확장을 만든다.

공연에는 일본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작곡가 마리히코 하라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한다. 또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작품의 개성을 드러내는 이정윤이 조명, 무용수의 경험을 토대로 누구보다 움직임을 잘 이해하는 배경술이 의상을 맡는다.

이와 함께 무대디자인은 공연·건축·기술·미술을 융합한 독창적 무대미술을 선보이는 유재현이 함께한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 전석 1만 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장애인복지관-정읍아산병원 '의료-복지' 연계망 구축 협약 체결

병원 문턱을 나서는 장애인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을 되찾도록 정읍의 복지와 의료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과 정읍아산병원은 지난 13일, 퇴원 환자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가 끝난 장애인이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의료 서비스와 복지 혜택이 단절되지 않도록 두 기관이 다리 역할을 해, 환자가 온전히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읍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자가 병원을 떠나 뒤에도 끊김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개정동 (유)신흥이엔지 착한가게 18호점 신규 가입

군산시 개정동에 자리한 (유)신흥이엔지(대표 김영상)가 착한가게로 신규 가입했다. 이로써 개정동 착한가게는 18호점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 신규 등록한 (유)신흥이엔지 김영상 대표는 평상시 개정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성금 기탁 및 헌혈 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왔다.

지난 13일 현판을 전달받은 김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가게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 저의 참여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활발히 퍼져나가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병윤 개정동장도 "지역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해주신 (유)신흥이엔지에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 박차

내년 해상인도교 일부 개통...편의시설 조성 홍보 사업 등 추진

군산시가 말도-명도-방축도를 연결하는 해상인도교 일부 구간 개통을 앞두고 고군산군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있는 일명 '5도 4교'의 해상인도교 사업은 2017년 첫 삽을 떴다. 제1교는 말도~보농도(308m), 제2교는 보농도~명도(410m), 제3교는 명도~광대도(555m), 제4교는 광대도~방축도(83m)이다. 현재 제1교가 10월 중 시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고군산 섬잇길'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걷기 여행(트레킹) 관광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조성 및 관광섬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 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K-관광섬의 1.4km에 달하는 해상인도교는 국내 유일무이한 해상 트레킹 코스로, 세심한 브랜딩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제1교 개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상 인도교가 개통되면 '바다 위를 걷는 특별한 트레킹 명소'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군산군도를 세계적인 트레킹 명소로 육성하는 K-관광섬 사업은 올해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주민역량 강화와 해설사 양성, 체험 콘텐츠 개발, 특색있는 섬마음 음식 등을 준비해 관광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으며, 섬 자원을 활용한 이색 홍보 마케팅과 체험형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연이어 선보이며 관광객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는 탁 트인 해안 경관, 바다 위를 걷는 해상트레킹, 국가 지정공원으로서의 가치, 신선한 섬 미식 등 매력적인 자원을 두루 갖춘 곳이다"라고 강조하며 "군산시는 이러한 장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K-해양관광의 핵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구절초 꽃축제, 13일간의 대장정 돌입

‘건강·치유·심리적 위로’ 주제...26일까지 개최

술향 머금은 가을바람을 타고 순백의 구절초가 일렁이는 물결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대표 가을 감성 축제로 이름난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산내면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치유의 문을 활짝 연다.

올해 축제의 핵심 주제는 '건강과 치유, 심리적 위로'다. 화려한 볼거리 나열을 넘어,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온전히 휴식하며 가을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방문객들은 보물찾기처럼 정원 곳곳

을 누비는 '정원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거나, 낭만적인 '꽃 열차'를 타고 숲 사이를 유유히 지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꽃과 정원을 바라보며 마음의 짐을 얻는 '꽃멍 정원 멍'이나 '나무늘개 감성체험' 같은 이색 프로그램도 마련돼 특별한 힐링을 선사한다.

축제 기간 내내 방문객들의 눈과 귀도 즐거워진다. 오는 18일 오후 3시 개막 축하공연에서는 박창근·장민호·김태연 등 정읍급 가수들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주말인 19일과 25·26일에는 김영희&정병문, 윤택, 최양락&편현숙 부부가 출연하는 명사 토크 콘서트가 꽃밭 야외무대에서 열려 유쾌한 웃음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출출해진 배는 정읍의 건강한 맛으로

채울 수 있다. 품평회를 거쳐 엄선된 구절초 두부김치·산채비빔밥·정읍 한우고기 등 향토색 짙은 메뉴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돼 축제의 만족도를 높인다.

축제장 진입도로는 산내면에서 행사장 입구를 거쳐 제3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일방통행이 시행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많은 인파가 예상되므로, 여유로운 관람을 원한다면 오전 일찍 방문하거나 늦은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학수 시장은 "구절초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정읍의 맛과 멋, 따뜻한 정을 느끼며 최고의 가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감성으로 물드는 10월 익산 '문화체험 주간'

원예-공예 등 시민 참여형 팝업 프로그램 풍성

문화도시 익산이 가을을 맞아 특별한 문화체험의 장을 연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14일부터 25일까지 인화동 '숨리문화의 숲' 2층 숨리화랑에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팝업 문화체험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14~18일 '감성주간'과 21~25일 '개성주간'으로 나뉘어 2주간 진행되며,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감성주간에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덜고,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체험이 마련

된다. 주요 활동으로 '힐링 원예-나만의 화분 만들기', '브릭 베어 열쇠고리 만들기', '나만의 거울톡 만들기' 등 창의력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체험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이어 개성주간에는 나만의 색깔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키링 만들기'를 비롯해 실용성과 창의성을 더한 '나만의 썸 만들기', '슬립온·티셔츠 커스텀 체험' 등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팝업 문화체험 주간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신만의 감성과 개성을 발견할 수 있



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온라인 임시민원 창구 운영

국민신문고 대체 관내 민원 접수·처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군산시가 지난 2일부터 대체 온라인 임시민원 창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임시민원창구는 시민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으며, 군산시는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부터 즉각 대응계획을 수립해 유선·방문(서면)·우편·팩스 등을 통해 민원 접수를 진행해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군산시 공식 누리집 내 새울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질의·건의·제안·예산 낭비 신고 등의 각종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열린민원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중

단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임시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시스템 복구시까지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민원창구에서는 군산시 관내의 민원란 접수가 가능하며, 타 기관의 민원은 해당 기관에 유선 등 별도의 방법으로 접수해야 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국 코스프레 팬들, 익산에 모인다

18일다다영등코스프레대회

익산 영등상권에서 전국 코스프레 팬들이 모이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익산시는 오는 18일 영등동 먹자골목(하나로11길 일대)에서 '2025 다다영등 코스프레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해 코스프레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총상금 180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열린 경연이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캐릭터 분장과 연출을 바탕으로 심사를 받으며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행사에는 유명 코스프레 전문팀 'RZ COS(알지코스)'가 등장해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람객의 시선

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행사 현장에는 의상 대여와 분장 부스도 운영돼 누구나 쉽게 코스프레를 체험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 코스어들의 코스프레 퍼레이드와 잼스틱 공연, 이카루스 댄스팀의 축하공연, DJ공연 등이 준비돼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별 행사로 영등상권 내 구매 영수증 인증 시 다다영등 재사용 가방(리유저블 백), 아광 머리띠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현윤 익산시장은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매년 성장하며 전국 코스프레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의상 대여와 분장 부스도 마련돼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분이 현장을 찾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형 상생일자리’ 17명 추가 모집

정읍시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3단계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이번 모집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최종 선발될 인원 17명은 지역 내 환경정비사업 등에 투입되며,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 일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만 60세 이하는 주 30시간, 만 61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

하는 조건이다.

신청 자격은 정읍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근로 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은 4억원 이하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일지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구직등록 확인서, 세대원 도장 등을 준비해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민·관 협력 먹거리 정책 강화

익산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익산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시 먹거리위원회' 제2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익산시 먹거리위원회는 지역 먹거리 정책의 지속 추진과 먹거리 순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다. 농업인 단체·시민 단체·교육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참여한다.

이번 제2기 출범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권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기 먹거리위원회 활동 현황 공유 △익산시 먹거리 계획 및 추진 상황 설명 등이 진행되며, 제2기 위원회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제2기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생산자·소비자·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16일 정기 교통량 조사 시행

조사원 총 96명 투입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교통량 조사와 관련해 오는 10월 16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교통량 조사를 추진한다.

교통량 조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군산시는 9개 읍·면 지역에서 지방도 11개 지점과 군도 5개 지점인 총 16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방도 66명, 군도 30명 총 96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를 시간별·차종별·방향별로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점검반을 편성에 조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조사지점 관측소별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조사원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확한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건설과 관계자는 "교통량 조사 결과가 도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향후 교통량 통계를 분석에 따라 도로 증·개설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도로 교통량 조사가 주·야간에 걸쳐 실시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2025 국제종자박람회’ 김제서 열려

22일~24일 개최
99사 참여480품종 전시
최신 제품기술 소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박람회인 ‘2025 국제종자박람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국제종자박람회(이하 박람회)는 농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다.

국내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박람회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씨앗하나, 세상을 바꾸는 힘(One seed, Change the world)”란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국·내외 종자기업 40개사와 농기자재 전·후방 기업 34개사, 기관·단체 25곳 등 99개사 등 참여하며, 해외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을 확대해 81여원의 종자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인 단체, 대학생 등을 초청해 박람회 우수품종과 농기자재, 육종시스템 등 종자산업에 대한 최신 제품과 농업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전시관·전시포 운영, 학술연구 심포지엄, 수출상담회, 품종 설명회뿐 아니라 각종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푸드존을 갖춰 누구나 쉽고 편하게 다양한 정보를 즐기고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박람회의 핵심인 야외 전시포(4ha)에는 종자기업 등이 출품한 51작물 480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해 해외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확인, 세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작기가 맞지 않는 감자, 버섯, 딸기등 작물은 수확물로 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의 불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코스모스 산책길과 화훼정원(백일홍·코스모스)을 조성했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패션그늘막과 동행로에 그늘막 및 보도블럭을 설치



했다.

고구마 수확체험, 씨앗 팔찌만들기, 달맞이꽃 화장품 만들기, 친환경 화분 만들기, 플라워 캘리 액자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국내 우수품종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국내외의 종자 자급률 향상과 수출시장 확대에 종자산업의 미래가치가 확산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지역특화 청년사업 ‘청년 취업 청신호’

GTQ·전산회계 자격증반
취업역량 강화 기대

부안군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천만원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반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자격증반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GTQ 자격증반에는 29명, 전산회계 자격증반에는 39명이 신청하며 청년층의 높은 수요와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월에는 GTQ(그래픽기술자격) 자격증반을 운영해 수강생 16명이 참여했으며,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청년들의 디지털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 능력이 중요해진 최근 취업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

이어 10월부터 11월까지의 전산회계 자격증반을 통해 2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회계 실무 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역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땅콩 신품종 품평회 개최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고창땅콩 경쟁력 강화

고창군 대성농협땅콩가공사업소가 14일 관내 땅콩 재배농가, 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땅콩 신품종 품평회’를 열었다.

이번 땅콩 품평회는 고창군 땅콩 재배 주요현황, 땅콩가공사업소 현황 소개와 함께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땅콩 신품종 전시 및 시식 행사로 구성됐다.

특히 땅콩 주요 품종별 전시를 통해

농업인과 참석자들이 품종별 외형과 특징을 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은 대표적인 땅콩 주산지로, 재배면적이 약 400ha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관내 농협에서는 땅콩 재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국립식량과학원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서 신품종 종자를 분양받아 대성농협과 함께 땅콩 품종 비교 시험포를 운영했다.

땅콩 품종 비교 시험포는 기존에 고창

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팔각 땅콩 외의 5품종(케이올2호, 해울, 고원1호, 보담, 신팔광)의 실증재배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우수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운영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땅콩 대표 주산지로, 땅콩 신품종 지역 적응 시험과 선발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우수한 품질의 땅콩 품종 보급과 기술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창땅콩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으로 고창땅콩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027년 국가예산 대응 본격화

AI기반특장모빌리티
기술개발등 신규사업발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 화두로 ‘국가예산 확보’를 내건 가운데, 14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2027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번 보고회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주재로 김희옥 부시장, 국소장, 부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신규사업 26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필요성 등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을 더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AI 기반 포트를 자동탐지 및 다기능 로봇모듈 탑재 특장 모빌리티 기술개발 △망해사 일원 국가 명승지 조성 △우분 고체연료 기반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R&D, △치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새만금 남북3축도로 건설사업 △만경 능계 유원지 조성사

업 등이 있었으며, 향후 논리를 보강해 설득력을 확보하고 국가예산 반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늘 보고회를 시작으로 치밀한 보강을 거쳐 국가예산 확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며 “새정부의 확장재정·균형발전 기조를 기회로 삼아 국가정책과 발맞추면서도 김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국도비 확보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AI기반 건강관리’ 주민 큰 호응

건강지표 전반 개선 뚜렷

고창군이 AI-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며 2년 연속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소는 최근 AI-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198명을 대상으로 4가지 분야(신체활동 실천현황, 식생활 실천현황, 만성질환 관리현황, 허약평가)에 대한 사전·사후 건강요소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신체활동 개선률 69.2%, 허약평가(3개 항목) 개선률 94.3%, 약력평가 개선률 94.9% 등 건강지표 전반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AI-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은 ‘오늘건강’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손목 활동량계 외 3종)를 활용해 6개월동안 보건소 전담 인력이 대상자 개별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2회 자조모임 형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 보충식품 지급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 실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벼 신품종 조기 확대 방안 모색

지난 13일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관한 벼 신품종 조기확산 및 브랜드 육성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현장평가회가 부안군 계화면 공안리 뜰에서 성황리 열렸다.

이날 현장 현장평가회에서 농업인 단체, 선도농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시범사업 추진 현황, 신품종 1 생육특성 및 재배현황 설명을 들은 후 신품종과 신품종1 생육을 비교하고 평가설문서를 현장에

서 작성 평가의견을 냈고 참여 농가들은 신품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농업기술센터 소장(정혜란)은 “기존재배 되고 있는 신품종, 동진찰을 차별화해 경쟁력 있고 우리지역에 적합한 벼 신품종 조기 확대 보급함으로써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부인쌀 브랜드 향상되도록 지속가능한 농촌지도 사업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라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인문학 향기 가득 가을 북콘서트 연다

18일 저자사인회·북토크 등

고창군 작은도서관 ‘책이있는풍경’이 오는 18일 제15회 북콘서트 ‘책이있는풍경에서 인문학으로 스며들다’를 연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이번 북콘서트는 저자사인회, 북토크, 출판기념회가 함께 진행돼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행사에는 제4회 고창신재호 문학상 수상자인 이수정 작가, 이정록

작가, 배공순 작가, 양진모 작가 등 문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이 함께한다. 이들은 각자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창작의 여정을 들려주며, 독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문학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나윤옥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북콘서트가 지역민이 함께 책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하우스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3일에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하우스를 현장방문해 스마트팜 재배환경 및 작물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스마트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방문한 김정희 농가는 첨단 환경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당도가 높고 품질이 균일한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딸기 수확이 끝나는 여름철에는 상추를 재배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연동 하우스를 설치하고 올해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기반의 생육관리로 연중 고품질 토마토를 출하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농업의 혁신 주체로서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27회김제지평선축제 시민참여친환경축제문화확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를 ‘환경과 함께하는 자원순환형 축제’로 운영하며, 시민 참여 중심의 친환경 축제문화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평선축제는 개막 첫날에만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 축제 27년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작가 쓰레기 수거와 청소 활동을 신속히 추진해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장을 유지함으로써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음식 판매 부스 전역에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였다.

또한, 축제장 내 곳곳에는 분리배출함을 비치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이 스스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벽부터 직원들이 수시로 청소행정을 점검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와 현장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인 만큼, 이제는 환경적 책임까지 함께 담은 지속가능한 축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자원순환형 축제문화를 확산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김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굿네이버스 후원 연계 여아 20명에 소녀생각KIT 지원

고창군이 굿네이버스의 후원 연계를 통해 드림스타트 여아 20명에게 ‘소녀생각KIT(위생용품)’을 지원했다.

‘소녀생각KIT’는 위생용품(10만원 상당), 보온 물주머니, 트러블 패치, 파우치, 종합영양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물품 전달과 함께 위생용품 사용법 및 성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여아들이 위생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정현 인재양성소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 연계를 발굴하겠다”며,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동시설자립지원사업 및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서신서외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점검단 현장점검 전개

부안군은 부안읍 서신서외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집수리 점검단’을 구성해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집수리 점검단은 국토교통부의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2025.6 개정)에 따라 건축사 등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으로, 집수리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집수리 점검단은 집수리 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상태 점검 및 진단, 견적서 작성성 검토, 공사 범위 및 내용 확인 등을 실시했다. 특히, 주민과 시공업체 간 제출된 견적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수해 과다 견적 여부와 공사 항목의 적정성을 확인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택의 노후도, 구조 안전, 집수리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수리 점검단 운영을 통해 주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집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16일 막 올려

19일까지 드론·로봇 융합 축제 드론레이싱 등 30개국 참가 열전 체험·전시·공연·푸드존 다채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드론 축제인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제전은 국토교통부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항공안전기술원이 후원한다.

개막식은 16일 저녁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놀이로 화려하게 시작된다. 장관

과 함께 인기 K-POP 아티스트들이 축하 공연을 펼친다.

폐막식은 19일 시상식과 함께 어린이 인기 콘텐츠 ‘핑크퐁 싱어롱쇼’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국화꽃 화단과 대형 꽃 조형물, LED 빛 터널이 설치돼 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되며, 총 4가지 핵심 테마가 마련된다.

첫 번째는 드론·로봇 스포츠대회다. DFL 국제 드론 레이싱대회를 비롯해 드론 축구·농구, 청소년 드론 로봇대회 G-PRC, 시민 참여형 드론 방제·수색

대회 등 다양한 경연이 펼쳐진다. 총 30여 개국에서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두 번째는 드론·로봇 전시 및 컨퍼런스다. 80여개 국내 유망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세 번째는 청소년 공연 및 체험 페스티벌이다. 200여 개의 체험 부스와 어린이를 위한 핑크퐁 팝업 놀이터 등 전 세대를 위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네 번째는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이다. 남원의 특산물 백향과 원푸드, 향토 음식은 물론, 다문화 4개국의 먹거리와 푸드트럭존이 운영돼 풍성한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고산농협과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38개 마을 생필품 등 트럭 순회 식품사막화·교통취약 해소 기대

완주군이 교통 불편과 상점 부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고산농협과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협약식을 갖고, 식품사막화와 교통취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농촌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는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배후마을서비스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서비스사업 일환으로,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판매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면 6개 마을, 비봉면 19개 마을, 동상면 13개 마을 등 총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농림



완주군이 교통 불편과 상점 부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가동했다.

축산식품부·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이 지원한 10.3톤 이동판매 차량 1대와 1톤 냉동차량 1대를 활용해 고산농협이 운영을 맡는다.

이동장터는 지난 9월 22일 고산면 화정마을을 시작으로 주 5일 운영되고 있으며, 각 마을에 30분씩 정차해 생필품 판매와 주문 배달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 5개 시·군(충북 청주, 전북 완주, 전남 함평·장성, 경북 의성) 시범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전남 함평에서 열린 발대식 이후 지역 맞춤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이동장터 사업이 농촌의 식품사막화 문제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체 회복의 촉매제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완주군>

순창군, 섬진강서 즐기는 ‘수상레저 주말 체험’

카누·카약 등 체험 무료 운영 새로운 관광 자원 ‘주목’

순창군이 오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상레저기구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수상레저연맹이 주관하는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래프팅가이드의 수상안전 및 노 젓는 방법 등을 교육 후 카누·카약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장소인 유등면 화탄마을은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용결산 하늘길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특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또한 17일~19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를 맞벌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순창군은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유등면 화탄마을 섬진강변에서 ‘수상레저기구 체험교실’을 무료 운영한다.

는 순창장류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카누, 카약을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체험 신청은 전화(섬진강수상레저연맹 063-652-6520)를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시간대별로 탑승인원 20명, 일 최대 100명 이용가능하고 예약인원 미달 시에는 현장 방문객을 대상

으로 선착순 접수 운영한다.

섬진강은 물이 맑고 유속이 완만해 카누·카약 체험에 최적의 장소로 꼽히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5,975명이 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순창군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네덜란드 종자기업과 스마트팜 협력 모색

글로벌 기업 엔자자덴 후속 방문 관내 농가 경쟁력 제고 기대

세계 10위권 종자 기업인 네덜란드의 엔자자덴(Enza Zaden) 관계자들이 남원시의 스마트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남원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남원시가 추진 중인 ECO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글로벌 기업의 전문성을 더하고,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엔자자덴의 케이페 페인스트라(Keimpe Veenstra)이사, 루로프 템펠(Roelof Tempel)부장 등 총 6명의 방문

단은 이날 오후 2시 남원시청에서 시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엔자자덴-남원시 스마트팜 관련 협력 방안 △스마트팜 내 종자 관련 자문 및 협력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4월 남원시 관계자들이 네덜란드의 엔자자덴 본사를 방문했던 것에 대한 후속 방문의 성격을 띤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시가 추진하는 ECO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큰 동력을 얻고,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시청에서의 미팅 후, 대산면 수덕리에 조성 중인 남원시 ECO 스

마트팜 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 부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엔자자덴의 케이페 페인스트라 이사는 “남원시의 미래지향적인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엔자자덴의 품종 개발 기술과 노하우가 남원시 스마트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궁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원 관내의 많은 파프리카 및 토마토 농가에서 엔자자덴의 종자를 사용하고 있어,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경우 농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전국 최초 ‘아동친화편의점’ 개소

GS25와 봉동첨단점 오픈 아동 편의 운영 시스템 갖춰

완주군이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GS25와 손잡고 전국 최초 ‘아동친화편의점 1호점’을 선보이며 아동친화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4일 완주군은 봉동을 GS25 봉동첨단점에서 ‘아동친화편의점 1호점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GS25 관계자,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내 아동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 아동음부즈퍼슨사무소가 운영 중인 ‘아동친화상점’ 사업을 아동 이용률이 높은 편의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던 중 GS25가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하면서 성사됐다.

‘아동친화편의점 1호점’은 단순

한 물품 판매 공간을 넘어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쉼터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매장에는 아동친화 전용 현판이 부착되고, 아동 눈높이에 맞춘 진열대 구성, 아동 전용 휴게공간 마련, 아동 대상 할인 혜택 제공 등 아동친화형 매장 운영 시스템이 적용된다.

군은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전역으로 아동친화편의점을 단계적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완주군 아동음부즈퍼슨사무소는 지난해 말부터 아동 및 양육자의 이용이 높은 카페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상점을 모집해왔으며, 올해 초 관내 음식점 및 카페 26곳을 ‘아동친화상점 아이라이프존’으로 선정해 운영하는 등 아동 친화적인 상업 환경을 구축해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2025년 민방위 1차 보충 집합교육 진행

순창군은 14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1~2년 차 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원, 민방위대장 등 총 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민방위 제도 이해 △응급처치 요령 △화생방 대비 △화재 대응 등 4가지 필수 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된 보충 1차 사이버 교육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7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민방위교육 누리집(civildefense.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1월 중에는 마지막 보충 2차 교육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며, 미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연휴 비상근무 홀몸 어르신 안전 지켰다

완주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했다.

군은 돌봄 서비스 중단 등 비상 상황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응급관리요원, 마을 이장, 생활관리사 간 비상 연락망을 24시간 유지하고,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어르신이 있을 경우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서는 등 선제 대응 체계를 운영했다.

특히, 연휴 기간 중 경천면에 거주하는 80대 홀몸 어르신의 활동이 일정 시간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으며, 어르신은 “명절에 직접 찾아와줘서 든든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은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 과제”라며 “시스템 장애와 같은 돌발 상황에서도 안부 확인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세심하게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앞장’

순창군이 지역 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검진, 불소도포 등 통합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치아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협력해 하반기에도 추진되며, 총 1,065명의 아동(미취학아동 245명, 초등학생 8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자료를 활용해,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비롯해 충치 예방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치과전문의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구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결과를 안내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불소도포도 함께 실시해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충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민선8기 공약이행률 75% “총력 추진”

확대간부회의서 공약사업 점검 총 84개 이행 완료 28개 진행 중

유희태 완주군수는 14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4대 분야 총 112개 공약사업에 대한 현황이 보고됐다.

2025년 9월 말 기준 완주군 공약이행률은 75%로, 군은 현재까지 △아동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건립 △대둔산

/완주=김명곤기자

제1회 남원풍류 전국농악경연대회 19일 개최

무형유산 남원농악 저변 확대 신인 발굴 세대 계승 중점

고(故) 류명철 명인을 추모하고 남원농악의 전통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1회 남원풍류 전국농악경연대회’가 오는 19일 남원시 요천면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으로 우리 민족 공동체적 삶과 흥을 대표하는 예술이다. 남원농악은 현재 국가유산청에 등재된 전국 8개의 지역농악 가운데 하나로 시는 남원농악의 저변확대와 후속 세대 계승을 위해 이번 전국농악경연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청소년부는 오전 9

시, 일반부는 오후 1시부터 각각 경연을 시작한다.

경연 종목은 팽고리·장구·북·소고·전통연희·사물놀이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하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

기존 타 농악경연대회가 단채전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 대회는 남원 농악의 저변을 넓히고 농악명인과 청소년 꿈나무를 발굴하고자 개인의 기량과 예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 경연대회로 마련됐다.

총상금 규모는 1,300만 원으로, 일반부 대상(남원시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 청소년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이 수여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통·현대 문화향연 ‘남원 국가유산 야행’ 열려

16일부터 광한루원 일원서 낙화놀이와 청사초롱 풍등 선행

남원시가 주최하는 ‘남원 국가유산 야행’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광한루원 일원에서 열린다.

‘야행(夜行)’은 지역에 집적된 국가유산과 주변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결합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남원 야행은 명승 광한루원을 무대로 8夜(야) 테마에 따라 전시·공연·체험 등 32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8야(夜)는 △야경(夜景)-아름다운 광한루원의 밤 풍경 △야로(夜路)-유유자적거니는 광한루원 야사(夜史)-광한루원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체험 △야화(夜畵)-이야기가 있는 전시 △야설(夜說)-월궁에 울려 퍼지는 품격있는 운율 △야시(夜市)-재미있는 야시장 △야식(夜食)-월궁 담은 먹거리 △야숙(夜宿)-남원에서의 하



룻밤이다.

총 8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야행의 핵심 프로그램은 △월궁전등날리기 △남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낙화놀이를 꼽을 수 있다. 이번 야행에서는 새로운 청사초롱 풍등을 선보인다.

일정 및 사전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어울림 봉사단, 회원사와 완주군에 물품·성금 기탁

어울림 봉사단(회장 윤현철)과 소속 회원사인 ㈜호연테크(대표 최지원), 코치푸드(대표 배정은), 일이삼한방병원(대표 김일)이 완주군에 총 625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최근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윤현철 어울림 봉사단 회장, 최지원 ㈜호연테크 대표(수석부회장), 배정은 코치푸드 대표(고문), 어울림 봉사단원 등 24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후원 내역은 어울림 봉사단 프로폴리스 50개(225만 원 상당), ㈜호연테크 성금 100만 원, 코치푸드 고구마 및 가공품 50상자(150만 원 상당), 일이삼한방병원 건강보조제 50상자(150만 원 상당)다. 기탁된 물품과 성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됐다.

윤현철 어울림 봉사단 회장은 “회원사 대표들이 함께 뜻을 모아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신풍동지사협, 장수사진 촬영·국수 나눔 행사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호길)가 14일 신흥경로당에서 대촌마을, 신흥마을, 새한아파트 어르신 60여 명을 모시고 ‘제4회 장수사진 촬영 및 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당신멋져봉사대(회장 조현경)’의 재능기부로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이 진행됐으며, 단정하게 단장한 어르신들은 카메라 앞에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생의 또 한 장을 기록했다. 완성된 장수사진은 액자에 담아 추후 각 가정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최호길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지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장수군 장계면, ‘아기탄생 축하 전달식’ 개최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

장수군 장계면은 출생 및 전입자 축하사업의 일환으로 전월 출생한 아기와 가족을 축하하는 ‘아기탄생 축하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새 생명의 탄생을 마을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고,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축하 메시지와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가족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에 출생축하를 받은 아기

가족은 총 3가정으로, 마을 주민들과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축하의 뜻을 나눴다.

출생 아기의 부모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웃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서 아이를 건강하고 밝게 키워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장호 면장은 “아기의 울음소리는 마을을 더욱 활기차고 따뜻하게 만드는 희망의 소리”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장계면의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익산 자립준비청년 후원금 300만원 기탁

보호종료 후안정적인 정착지원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살기기를 응원하는 나눔이 전달됐다.

이날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박성준 지구총재, 박삼열 익산지역 부총재는 시청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보호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삼열 부총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하게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응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 피어나다 팀, 고흥 게이트볼대회서 3위 쾌거

전북 피어나다 팀이 지난달 23일 전남 고흥군에서 열린 ‘우주항공배 초청 게이트볼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지역의 명예를 빛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64개 팀 559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전북 피어나다팀은 예선전에서 안정된 경기력과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24일 열린 본선 토너먼트전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3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었다.

노암동 게이트볼협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노암동 통장이자 게이트볼협회 회장인 전순자 회장이 직접 출전하여 팀을 이끌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전순자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 돼지고기 250kg 기탁

(사)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가 완주군에 4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전지 250kg를 전달했다.

최근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조동선 지부장, 추금해 부지부장, 박수홍 사무국장, 이종완 감사, 정영수 전 부지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전달된 돼지고기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돼지고기를 꾸준히 후원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조동선 지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 한돈 농가의 책임이자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매년 잊지 않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장학금 총 300만원 기탁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무주여성센터에서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2백만 원,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제29회 무주반딧불 축제장에서 ‘찾집’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마경옥 회장은 “장학금은 무주반딧불축제가 개최되는 9일 동안 여성단체협의회 찾집을 운영했던 회원들의 수고, 찾아주셨던 모든 분의 마음”이라며 “귀하게 모아진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원대한 꿈과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식에서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0여 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주도민, 고창군 찾아 세계유산축전 관람

제주시 이도2동 도남부녀회 회원들이 지난 11~12일 고창군을 찾아 ‘2025 고창 세계유산축전’과 ‘전통예술체험마을’을 둘러보며 세계유산도시간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두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관광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세계유산축전이 열리고 있는 고인돌박물관을 찾아 ‘고창의 보물, 자연과 사람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했다. 이후 고창 전통체험예술마을을 찾아 판소리, 자개공예, 천연염색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고창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맛을 직접 느꼈다.

참가자들은 “고창은 유산과 자연,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였다”며 “세계유산축전과 전통체험마을을 통해 지역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



〈一事一言〉



한국에도 ‘심층 국가(Deep State)’가 있다(1)

오태규

언론인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인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미국 외교의 대전략>(원제, The Hell of Good Intentions)이라는 책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국제 정세가 변하는데도 미국의 외교 정책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은 외교 정책 생산·집행의 기득권 세력인 ‘외교 정책 공동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군 등의 정부 기관, 두뇌집단(싱크 탱크), 이익단체 및 로비 단체, 언론매체, 학계 등이 두루 참여하고 있고, 그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견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바라는 정책만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죠.

월트 교수는 이런 기득권 집단을 ‘한 줌의 물방울’이라는 뜻의 블롭(blob), 또는 워싱턴을 감싸는 순환도로의 이름을 따서 ‘벨트웨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을 빌리자면, ‘심층 국가(Deep State)’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도 미국처럼 외교·안보 정책을 좌궐궐파궐하는 심층 국가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고 있지만, ‘숨미·친일’ 중심의 외교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그런 정책을 생산하고 주무르는 강고한 집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품 외교>와 <브라보 한미동맹> 연작을 통해 한국 외교의 문제를 통렬하게 까발린 이창천(가명) 전 대사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군중시위 때 성조기를 들고나오는 세계에서 유이(唯二)한 국가입니다. ‘미국 송배의 진(gene)과 밈(meme)’이 한국 사회의 구성구석까지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미 정책을 두고는 누가 심층 국가의 구성원인지 따지는 게 사치스러운 정도입니다. 정(政)·관(官)·학(學)·군(軍)·종(宗)·언(言) 등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잘나가는 사람은 거의 다 그 구성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일 정책은 좀 다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가혹하게 다스렸던 쓰라린 역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친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도 겉으로 내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안팎의 차이가 대일 정책에서 심층 국가가 준동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심층 국가 노릇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한일포럼(일본은 ‘일한포럼’이라고 부름)입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일 민간 대화 창구입니다. 양국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50명 정도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술한 의견 교환을 통해 건전한 양국 관계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 아래, 매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오가며 비공

개 대화를 합니다. 올해 8월 서울에서 3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포럼에 참가하는 한국 쪽 사람들이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한국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쪽 참가자 면면만 훑어봐도 왜 이런 의문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권은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참가자 대부분은 윤석열 정권 취향이거나 보수 성향 일색입니다.

일례로, 한국 대표 33명 중에 유명한 회장(노무현 정권 때 주일 대사·이명박 정권 때 외교부장관)을 포함해 신각수·윤덕만·박철희 등 주일 대사 출신이 4명이 들어 있습니다. 유 회장 외에 3명은 모두 보수 정권 시절에 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박 전 대사와 진창수 전 오사카 총영사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불려 들어왔는데도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때 대사를 지낸 사람들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언론계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기자와 <중앙일보> 기자 출신 기업인은 들어갔지만, 진보 성향 매체에서는 <한겨레> 기자가 구성용으로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다른 분야도 구성원 편향이 대동소이합니다.

한국 쪽 한일포럼 참가자 구성이 보수·친일 성향 일색이 된 데는 유명한 회장의 책임이 큼니다. 형식적으로 5인 운영위원회라는

내부 논의 기구가 있지만, 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무엇보다 회장 선임 과정부터 불투명합니다. 그는 2013년 공모명 초대 회장으로부터 회장직을 열렁퐁퐁 물려받은 뒤 10년 이상 장기 집권 중입니다. 한일포럼은 매년 정부로부터 역대 의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지만, ‘민간 자율’을 명분 삼아 정부의 간여를 피하고 그렇다고 내부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제대로 밟지도 않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하면서 포럼 운영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정책 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의민주주의가 연다

전북도가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농생명산업, 수소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이 속속 추진되고, 새만금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이면에는 언제나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한다. 개발과 보존, 성장과 복지, 산업과 환경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의회 국zey은 의원이 발의한 ‘전북 특별자치도 속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는 시의적절하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도다.

지금까지의 정책 결정 구조는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일방통행식이였다.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일부 이해집단의 목소리에 치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방식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행정 불신을 초래해 왔다. 반면 속의민주주의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도민 스스로 공론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선출된 대표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문제와 지역 현안에 즉각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속의민주주의는 이러한 한계를 매우고 도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해 스스로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체적 실행 기반도 충실히 담고 있다. 속의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 지원의 책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참여 형식을 제도화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정책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개발사업이나 환경문제, 복지정책 등 각종 민감한 현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공공정책의 실패는 대체로 ‘절차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충분한 속의와 공론화가 보장되지 않은 정책은 결국 시행 단계에서 저항에 직면한다. 속의민주주의는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현명한 해법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가 지향하는 가치는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되는 길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행정이 도민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 ‘함께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 비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도의 성과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행정의 의지, 예산 확보, 공론화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장식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전북도는 속의민주주의를 실질적 도정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갈등의 시대를 대화와 합의의 시대로 전환시키려는 전북의 성숙한 정치 실현이다. 도민의 뜻이 행정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전북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도의회가 이 조례를 신속히 안착시켜 속의민주주의가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행정 문화로 뿌리 내릴길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석정이정직유저유목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서간류, 간독

-지정일 - 1995년 6월 2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김제시 백산면 요교길 187 (상정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전북) 44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전북의 변화 , 전북 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0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순창의 빛깔로 세계를 물들이다

전통과 미래가 만나는 발효문화의 향연



1997년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조성 이후, 2006년부터 시작된 장류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성장했다. 올해 축제는 특히 “한국의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며, 전통 장류의 세계화를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의 장 담그기” 유네스코 등재 기념,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순창장류축제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진다.

불거리로 가득, 조선왕조 진상행렬의 재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이다.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무학대사를 만나기 위해 순창의 만일사를 방문하던 중 한 민가에서 맛본 고추장의 깊은 맛을 잊지 못했다. 조선의 임금이 된 후 순창고추장을 진상토록 했다는 일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 행렬은 조선시대 임금님께 고추장을 진상하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한다. 전통의상을 입은 행렬단과 취타대, 농악대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며, 관광객들도 직접 행렬에 참여할 수 있어 살아있는 역사체험을 선사한다.

‘캐치! 티니핑’, 순창장류축제장을 찾는다

온 가족이 즐기는 순창장류축제장을 위해 20주년을 맞아 특별 이벤트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캐치! 티니핑’을 축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축제기간이 10월 18일 주무대에서 12시와 4시, 2회 선 보인다. 축제장 주무대에서 무료 공연으로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도내 많은 아이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정되어 공연장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고추장 만들기

‘도전 다함께 고추장 만들기’ 프로그램은 11개 읍면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어 고추장 명인의 지도하에 전통 고추장을 만드는 대규모 참여형 이벤트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자, 전통 장문화를 직접 몸으로 익히는 산교육의 현장이다.

뿌리부터 배우는 장문화의 정수

새롭게 선보이는 ‘콩, 삶고 찜고 메주 만들기’ 프로그램은 장류의 근본인 메주 만들기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아궁이에서 콩을 삶고, 절구에 찜어 메주를 성형하고, 벼짚으로 묶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온몸으로 체험한다.

축제기간 3일내내 운영하며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받아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장류체험관 앞에서 운영되며,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등 1일 3회씩이다.

장의 고장 순창답게, 민속마을내에 고추장체험 가득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기능인과 명인이 운영하는 체험장에서 체험프로그램으로 고추장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손쉽게 마트에서 사먹는 고추장이 아닌 전통 방식으로 순창의 명인과 기능인들과 함께 고추장 만들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단체나 방문객이 많을 경우 사전예약이 필수다. 축제기간인 10월 17일부터 19일사이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등 일 3회씩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하는 체험장별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체험비는 1인당 15,000원으로 체험 참여자에 한해 전통고추장 500g을 증정한다.

20주년 특별 이벤트로 더욱 풍성하게

축제 20주년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도 대폭 강화했다. 장류제품 특별 20% 할인과 10% 상품권 지급, ‘황금 메주를 찾아라’, ‘20주년 성년을 맞은 너와 나’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관광객들을 기다린다. 특히 순창 보물 캐리더 ‘장추왕’을 찾는 프로그램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관광

순창장류축제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관내 음식점, 숙박업체, 체험업체가 참여하는 ‘동행 장류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장류축제 힐링마실 스탬프 투어’는 축제장뿐만 아니라 강천산 군립공원, 용평산 하늘길 등 순창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기간 중 순창 관광지, 장류축제장 등 방문 후 인증사진 3장을 문화관광 누리집에 올린 관광객에게 장류세트를 선물로 준다.

단체 관광객과 함께 하는 순창장류축제

단체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전국 여행사와 연계 운영한다. 관광객 20명 이상으로 주요 관광지와 장류축제장, 관내 음식점 등을 방문한 후 영수증과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버스비 일부를 지원한다. 방문객이 20명 이상일 경우 버스비 1대당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방문객 수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인터뷰] 최영일 순창군수

천년 넘게 이어져온 우리 조상의 발효 지혜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맛보고, 배워갈 수 있다

“스무 살 성년이 된 순창장류축제는 올해는 정말 특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매력적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순창장류축제를 전통과 현대가 어울려 넘겨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장류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어떤 축제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진정성 있는 체험”이라며 “화려한 불거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넘게 이어져온 우리 조상들의 발효 지혜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맛보고, 배워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영일 군수는 “순창장류축제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서 “관내 음식점, 숙박업체, 체험업체가 참여하는 ‘동행 장류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영일 군수는 “600년 전통의 맛과 향이 살아 숨 쉬는 순창에서,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인의 감성이 만나는 특별한 3일이 시작된다”면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펼쳐지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에서 한국 발효문화의 진수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